

■ 일본

동경제과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제41회 과자 페스티벌 개최



동경제과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2004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41회 과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졸업생,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날로 인기를 더해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자리 잡았다.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 코너, 양과자, 화과자, 빵 만들기 코너, 전시작품 코너, 카페, 졸업생 점포 소개 코너, 불우이웃 돕기 코너 등 갖가지 이벤트가 펼쳐진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주목받는 검은 식재(食材)로

흑미, 흑당, 검은깨, 검은콩 등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한 '검은 식재'가 신소재로 주목, 상품화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흑미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가가 높은데다 백미보다 쫄깃한 식감이 좋아 수요가 늘고 있다.

흑당(黑糖)상품으로는 캐러멜, 사탕 등이 다량 발매되고 있다. 흑당은 피로 회복 효과가 뛰어난 알카리성 식품으로 칼슘, 비타민 B1, B2를 섭취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프트크림, 푸딩, 아이스크림, 쿠키 등의 상품 원료로 인기가 있는 검은깨는 고소한 맛과 향이 감칠맛을 더해주고 간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세사민을 비롯해 비타민 E, 리놀산, 오레인산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영양보조식품으로도 인기가 있다.

또한 골다공증을 방지하는 이소플라본을 포함한 식재료로 주목받는 검은콩을 주원료로 한 차, 코코아 등의 상품화도 성공했다.

■ 프랑스

프랑스 제빵단체 'Pièces Jaunes' 동참



Operation pièces Jau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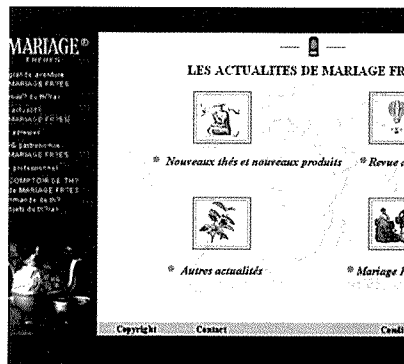


Crée en 1989 par la fondation hopitaux de Paris - France, et présidée par Bernadette Chiras, l'operation pièce travaille à améliorer la qualité des enfants hospitalisés. Con projet permet aux enfants de pouvoir rester près de leur meilleur accueil, aussi que d'avoir quelques distractions. L'operation pièce jaune collecte comme son nom l'indique les qui encombrant bien souvent le porte monnaie. Et millions d'euros ont été aussi recollés.

프랑스 제빵단체에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돕는 운동인 '피에스 존느(Pièces Jaunes)'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1990년에 시작한 '피에스 존느'는 '등전'을 의미하는 말로 병원에서 지내는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모금운동이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제과인들은 제과점 계산대에 작은 모금함을 마련하거나 TGV 역사에서 빵을 나눠주는 형식의 이벤트로 피에스 존느를 실천하게 된다. 피에스 존느는 2003년 총 7천 6백만 유로를 모금해 병원의 어린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

마리아주 프레르 신상품 인기 돌풍 예고



프랑스의 유명한 다류 전문 상점인 '마리아주 프레르(Mariage Freres)'에서 선보인 신상품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점점에서 가장 판매가 잘되는 3가지 차를 세트

로 판매하는 품목인 955, 918, 922 시리즈가 바로 그것. 이 품목 안에는 각각 100g씩의 '르 닐(le Nil)', '오리양탈(Oriental)', '마르코 플로(Marco Polo)'의 차가 포함된다.

이밖에 5가지 찻주전자 시리즈인 '망가(Manga)'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가지 주전자들은 각각 빨강, 은색, 초록 등 강렬한 색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전통 다문화를 혼합한 이미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